

## 중년기 위기감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

김애순·윤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년기 위기”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써 “중년기 위기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Levinson의 이론과 Costa와 McCrae의 “Mid-life Scale”에 근거하여 104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299명의 성인 남녀(평균연령: 43세)에게 실시했다. 먼저 척도의 잠재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인 분석, 송사리검사, 평행선 분석을 실시한 결과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사각돌리기를 통해 .34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86개의 문항이 선택되었다. 이 요인들은 다시 2단계 요인분석 결과 3개의 고단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86개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결과 76개 문항이 양호한, 8개 문항이 조금 약한, 그리고 2개 문항이 아주 낮은 변별도를 보였으며, 반응분포는 12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상분포에 가까웠다. 또한 8개의 요인이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요인9는 신뢰도가 낮았다. 따라서 요인9(성역할의 변화)를 제외한 8개의 요인(정서적 위기감 I, 과거에 대한 재평가, 직업 만족도,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자아의 이해, 정서적 위기감 II, 결혼 만족도, 자녀관계)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여기에는 80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1970년대 이후 “중년기 위기”가 소설, 영화, TV 드라마 등을 통해 대중적인 개념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대중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중년기 위기”라는 개념은 Jung(1954), Jaques(1965)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 이후 Sheehy(1976), Levinson(1978), Gould(1978), Vaillant(1978) 등의 전기적(傳記的) 연구를 통해 성인발달 이론의 일부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중년기 위기”란, “개인이 인생의 중반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 그리고 목표성취정도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격(personality)내에서의 급진적인 변화현상”을 묘사

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Whitbourne, 1986). 여기서 “위기(crisis)”란 용어는 심리적인 혼란과 고통이 어느 발달적 전환기 보다 더 심각하다는 뜻에서 “전환기”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Kimmel, 1974). 그러나 중년기 위기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 위기감이 중년기 이후 발달에 대해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과 공헌 여부(즉, 유용성), 그리고 그 발생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들의 불일치로 인하여 아직 많은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Levinson(1978)은 35-45세의 40명의 남성들에 대한 전기적 면담을 통한 연구에서 피험자의 80%가 40-45세경에 생의 전반에 대한 의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삶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냉정하고 지적이라기 보다는 무의식적인 갈등과 정서적인 혼란, 그리고 절망, 침체감, 무기력감, 방황등을 수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위기감의 핵심에는 실존에 대한 의문과 공허감, 죽음의 필연성(mortality)에 대한 인식과 젊음이 사라져감을 애도하는 심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Levinson은 이러한 혼돈과 갈등은 결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며, 그 동안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자아의 측면들을 인식하고 “자신(self)”을 더욱 전체로 통합시켜 나가는 유익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중년기 위기에 대한 이와같은 보편성과 유용성을 Carl Jung과 마찬가지로 “개별화 과정(individu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Jung(1954)은 중년기를 이전에 갈구하던 목표들이 성취되었는데도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감이 찾아드는 과도기인 동시에 성격발달의 정점으로 보았다. 중년기의 무의미함과 공허감은 인간이 의식적, 합리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의식적 토대와와의 접촉을 상실하고 영혼의 가치와 자연과의 일체감을 잃어버려 비 인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외부세계에 쏠리던 관심이 내면의 세계로 쏠리고, 흥미는 육체적, 물질적인데서 종교적, 철학적, 직관적으로, 그리고 의식부에 집중되었던 심리적인 에너지가 무의식의 경험들을 깨닫기 시작하므로써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자신의 일부분을 수용하여 조화로운 성격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보았는데, 이 과정을 “개별화” 또는 “자아인식”이라고 불렀다. Levinson은 이와같은 Jung의 이론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중년기의 개별화 과정을 “젊음/늙음”, “과파/창조”, “남성성/여성성”, 그리고 “분리/애착”의 4가지 측면의 상반된 경향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애순, 1990).

이와 같은 중년기 위기에 대한 Levinson의 견해는 Gould(1972,1978)와 Vaillant(1978)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즉, Vaillant는 “40대의 고통은 새로운 발달단계로 들어갈 준비이자, 본능적 인식에 기인한 재탄생의 경험이며, 40대 후반의 생성감을 성취하기 위한 전조”라고 규정함으로써 40대 초반의 내적 탐색이나 삶의 재평가 과정의 존재와 이러한 과정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뇌(anguish)는 죽음의 필연성보다는 “중년기 청소년(middle-aged adolescents)”과 자신들의 청소년기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봄으로써 변화의 촉매를 다르게 보고 있다. 또한 아주 심한 정서적 위기감은 정상집단보다는 임상집단에서 그 빈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Levinson과 Gould가 중년의 위기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Vaillant의 이러한 견해는 삶에 대한 재평가나 내적인 탐색과 같은 인지적인 과정은 사실상 정서적 위기감과는 별개의 차원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밝혀진 “중년기 위기”에 대한 이론은 최근들어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Cooper(1977)는 Levinson과 Gould의 이론에 근거해서 10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중년기 위기감 척도를 제작하여, 35세-79세인 233명의 정상집단에 실시한 결과, 8개의 연령집단간에 아무런 연령효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이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Costa와 McCrae의 연구(1978)에서도 연령집단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소수의 위기감을 보이는 피험자들은 신경증(neuroticism)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Costa & McCrae, 1980). 한편 Livson(1981)은 문화적인 특수성에 따른 성역할이

중년의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는데, 비전통적인(nontraditional) 남성과 여성들이 전통적인(traditional) 남성과 여성들에 비해 40대 초반에 더욱 중년의 위기감을 경험해 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Reinke와 그의 동료들(1985), 그리고 Roberts와 Newton(1987)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은 중년의 전환기 보다 30대를 전후로 하여 보다 심각한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중년기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김애순과 윤진(1987)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평가에 따른 대처행동양식이 다름을 밝히고 있는데, 30대보다 50대 여성들이 자신들이 위협 또는 상실적이라고 평가한 상황에서는 수동적, 신비적인 대처행동이 증가함을 발견하고, 이러한 변화는 내적 및 외적 요구에 적응하려는 행동적 노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김명자(1988)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9세사이의 남자를 대상으로, 중년의 위기감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 파악을 시도했다. 이 연구에서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중년의 위기감 척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중년기 위기감이 성별, 자아정체감, 부부관계, 건강, 종교, 학력등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2가지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중년기 위기에 대한 개념정의가 매우 모호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년기 위기”라는 개념이 “중년의 전환기”라는 개념과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중년의 “전환기”는 과거에 대한 재평가와 개별화 과정과 같은 인지적 차원과 신체적 무기력, 정서적 혼란과 고통과 같은 정서적 차원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위기”는 정서적 차원의 정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인지적 및 정서적 두 과정은 밀접한 연관은 되어 있지만 별개의 차원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연구들의 경우 전기적 면접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이 두 과정이 어느정도 분리·파악되고 있는 반면에 객관식 척도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는 두 차원이 혼입되어 있다.

둘째,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측정방법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 전기적 면접법이나 전기등의 자료를 이용한 주관적 및 질적 연구들이 중년의 위기론을 주장하는 반면, Gould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객관식 척도를 이용한 경험적, 양적 연구들이 특정한 중년기 위기의 존재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접법은 분석의 객관성 결여, 소수의 피험자 선택으로 인한 일반화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으나 심층적인 내적 과정을 탐색해 내는 데는 효과적 일수 있다. 이에 비해 객관식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보다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표집과 분석의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어 일반화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나, 노련한 경험과 면접기술에 의해 탐색된 “개인의 내적과정”을 정확히 확인하기에는 피상적 일 수가 있다. 특히 객관적 척도 사용시 흔히 나타나는 피험자들의 반응경향성(response set)등이 분석되지 않았을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가장 문제시 되는데,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위기에 대한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한국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한 “중년기 위기감 척도”를 개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중년의 전환기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차원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몇가

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년기 위기감 척도에는 Levinson 등의 중년의 전환기에 대한 이론과 Costa와 McCrae의 "Mid-Life Crisis Scale(MLC)"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영역을 묘사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영역은 개별화 과정과 같은 인지적인 차원을 기술한 것이며, 둘째 영역은 정서적인 갈등과 고통과 같은 정서적인 차원을 기술한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한 영역은 위에 제시한 두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그 과정들로 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 생활의 장면들을 기술한 문항들이다.

## 방법 및 절차

###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Costa와 McCrae(1978)의 MLC을 수정 보완한 10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Costa와 McCrae의 MLC는 원래의 Gould(1978)의 척도를 보완한 것으로서 10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문항수는 62개였는데 그 중 31문항이 Gould 척도의 문항들이었다. 10개의 하위척도는 내적혼란, 내향성, 시간조망의 변화,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억압된 자아의 출현, 결혼 불만족, 직업 불만족, 인생의 지루함과 권태, 자녀와의 불화, 그리고 부모로 부터의 분리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MLC의 62개 문항 중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의미가 중복되거나 적합치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제외한 47개의 문항을 선택했으며, 여기에 Levin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서적 위기감과 개별화 과정을 기술한 57개 문항을 더 보강하여 104개의 문항으로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각 문항

에 대한 평정은 5점 척도로 하도록 했다.

### 피험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남녀로서, 남자가 108명, 여자가 191명으로 총 299명이었다. 연령 범위는 35세-51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43세, 표준편차는 3.92였다. 학력은 고졸이 30.8%, 대졸이 65.9%였으며, 경제상태는 월수입 100만원 이상의 중산층이 76.5%였다.

### 절차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을 통해 250부가 배포되었으며, 150부는 서울시 타지역에 거주한 중년부부들에게 무작위로 배포되었다. 회수된 317부중 불성실한 응답자의 자료(예:전체문항의 1/3이상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문항에 대해 2중응답한 경우: 7명)나, 또는 연령범위가 35세-51세를 벗어난 자료(11명)는 제외시켰다.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99명의 자료였다.

## 결과

### 분석 I

먼저 척도의 잠재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SAS-PC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이 실시되었다. 104개의 문항중 기여도가 가장 낮은 4개의 문항을 제외한 100개의 문항에 대한 공통 요인분석(common factor model)이 실시되었는데, 문항의 수가 너무 많아 자료의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요인모델은 어떤 분포적 가정도 요구하지 않는 주요인 분해법(principal factor method)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축소된 상관 행렬의 고

유치(eigen value)와 누적변량(cumulative percent- age)이 표1에 나타나 있다.

표 1 축소된 상관행렬표의 고유치와 변량

요 인	1	2	3	4	5
고 유 치	17.9924	4.8559	3.4109	2.5089	2.1453
차 이	13.1365	1.4449	0.9019	0.3636	0.0962
변 량	0.3164	0.0854	0.0600	0.0441	0.0377
누적변량	0.3164	0.4018	0.4618	0.5059	0.5436
	6	7	8	9	10
고 유 치	2.0490	1.9447	1.6362	1.4713	1.3143
차 이	0.1042	0.3085	0.1648	0.1570	0.1013
변 량	0.0360	0.0342	0.0288	0.0259	0.0231
누적변량	0.5796	0.6138	0.6426	0.6685	0.6916
	11	12	13	14	15
고 유 치	1.2129	1.1649	1.1187	1.0680	1.0203
차 이	0.0480	0.0462	0.0506	0.0477	0.0356
변 량	0.0213	0.0205	0.0197	0.0188	0.0179
누적변량	0.7129	0.7334	0.7531	0.7719	0.7898

필요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송사리 검사(Scree Test),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 고유치와 누적변량, 해석가능성이 고려되었다. 표1에 의하면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15개로 전체변량의 78.9%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Scree Test결과 1차적으로는 요인3과 요인4 사이에서 큰 폭의 차이가 보였으며, 2차적으로는 요인14과 요인15 사이에서 큰 차이가 보였다. 그러나 평행선 분석을 한 결과 9개의 요인 ( $\lambda_9=1.4144$ ,  $\lambda_{10}=1.3690$ )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으로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9개의 요인들이 설명하는 누적변량은 66.8%였다. 다음으로, 해석하기에 보다 명확한 요인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9개의 요인에 대한 돌리기(rotation)를 했는데 각 요인들간에 상관이 있으리라 가정되었기 때문에 사각회전(orthoblique: Harris-Kaiser case II)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나타난 최종 요인구조에서 .34~.40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만 추출한 요인구조(factor structure)가 표2에 제

시되어 있으며, 돌린후의 요인간의 상관행렬이 표3에 제시되어 있다.

표2에 의하면, 요인1에는 .44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이 1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문항이 요인6에서도 유사하게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도 유사하다. 문항 81, 문항 79는 요인1, 3, 4, 6, 7에 유사하게 높은 부하량을 보이거나 내용상 문항81은 요인1에, 문항 79는 요인6에 포함 시킨다. 여기에는 Costa와 McCrae의 MLC 하위척도중 “내적혼란”에 포함되어 있던 문항들을 비롯해 자기혐오, 소외감, 무가치함등의 정서적 혼란과 갈등을 나타낸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1은 “정서적 위기감 I(소외와 불행감)”이라고 명명한다. 요인2에는 .39이상의 요인부하를 보이는 문항 8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MLC척도의 “내향성”에 포함되어 있던 문항과 과거에 대한 재평가와 생의 구조를 수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요인2는 “과거에 대한 재평가”로 명명한다. 요인3에는

.46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이 11개 포함되어 있으며, MLC 하위척도의 “직업불만족”에 포함되어 있던 문항들이 들어있어 “직업 만족도”라 칭한다. 요인4에는 .35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이 9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MLC 하위척도의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과 자기 효율성을 기술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이라고 명명한다. 요인5에는 .34이상의 문항이 11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억압되었던 자아의 출현과 내성을 기술하고 있어서 “자아의 이해”라 명명한다. 요인6에는 .43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이 1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문항이 요인1에서와 유사한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이 불안, 우

울, 권태, 짜증, 자기혐오등의 정서적 고통을 기술하고 있어 “정서적 위기 II(권태와 자기혐오)”로 명명한다. 요인7에는 .41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이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MLC의 결혼불만족에 포함되어 있던 문항들이어서 “결혼만족도”라 명명한다. 요인8에는 .35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이 6개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자녀관계를 기술하고 있어 “자녀관계”라 명명한다. 요인9에는 .35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이 5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존성과 성 역할의 변화에 대한 현상을 기술하고 있어 “성역할의 변화”라 명명한다.

표 2 9개 요인의 최종 요인구조

요인 1 : 정서적 위기감 I (소외와 불행감) - 13 문항

- 27. 나는 내 자신이 싫어진다.(.69)
- 73. 버려진듯한 소외감을 느낀다.(.68)
- 71. 무엇인가 잃어버린듯한 상실감을 느낀다.(.66)
- 101. 내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62)
- 51. 여러 사람가운데서도 결국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외롭다.(.60)
- 47. 불행감이 자주 느껴지며 서글프다.(.59)
- 94. 어딘가에 정신없이 몰입해 버리고 싶다.(.56)
- 72. 진정한 “나”가 아닌 타인의 뜻에 의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53)
- 48. 직업 또는 가사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세계를 갖고 싶다.(.53)
- 69. 현재의 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 때문에 덩에 걸려 있는 느낌이다.(.52)
- 81.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자주 일어 난다.(.51)
- 25. 타인으로 부터 받은 상처와 소홀함등이 생각이 나서 분노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49)
- 29.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적이 많다.(.44)

요인 2 : 과거에 대한 재평가 - 8문항

- 43.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71)
- 54. 내가 내 배우자, 자식, 남에게 준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60)
- 42. 내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살아갈 세월을 세어본다.(.58)
- 52. 내 젊은 시절의 꿈과 재능은 내 삶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며, 이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자문해 본다.(.57)
- 12. 과거의 추억에 잠겨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다.(.43)
- 44. 요즈음 진실로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가 아쉽다.(.53)
- 17. 부모, 친구들의 죽음을 보고 내 자신의 노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한다.(.44)
- 58. 지금까지 부모, 형제들과의 어려웠던 관계에 대해 이해심이 생기며, 그들을 보는안목이 달라진다.(.39)

**요인 3 : 직업만족도-11 문항**

- 104. 내가 기대했던 성공의 결과나 내 노력의 댓가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70)
- 98. 내가 내 직업에 보낸 세월들이 의미가 별로 없고 이루어 놓은게 별로 없다.(70)
- 82. 나는 내 직업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66)
- 87. 만약에 나에게 다시 직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61)
  - 2.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56) (R)
- 38. 내 일생에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55)
- 92. 내 직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52)
- 102. 젊은 시절에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가치와 목표들이 허망하게 생각된다.(52)
- 30. 잃어버린 내 자신의 부분들,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과 서글픔이 있다.(49)
- 77. 나는 내 직업에서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을 모두 성취했다.(47) (R)
  - 4. 현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지며 무언가 새로운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46)

**요인 4 :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9문항**

- 10. 나의 신체적 외모에 자신이 없어진다.(69)
- 11. 나의 성격매력이나 능력에 자신이 없어진다.(65)
- 32.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내 자신의 결함과 나약함을 깨닫기 시작한다.(60)
- 15. 젊음과 건강에 대한 상실감이 나를 서글프게 한다.(59)
- 16. 10년전 만큼 젊고 정력적으로 느낀다.(45) (R)
- 23. 다른 사람들이 내 능력을 인정해준다.(43) (R)
- 5. 나는 가족과 타인들로 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38) (R)
  - 1. 이전에 내가 했던 만큼 일할 수 없다.(35)
- 14.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35) (R)

**요인 5 : 자아의 이해-11문항**

- 37. 이제 뭔가 인생에서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64)
- 28. 내 자신의 가능성과 욕구를 표현하려는 욕망이 증가한다.(56)
- 50. 내가 나와 타인들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본다.(56)
- 46. 요즈음 나는 내 자신 속에 몰입해 있는 적이 많다.(55)
- 21. 내가 남에게(자식, 배우자, 부모 등) 준 상처, 소홀 함 실수들이 후회스럽다.(49)
- 22. 가계를 계승(제사)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예전보다 더욱 관심이 간다.(45)
- 36.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만 내 자신이 진지하게 느껴진다.(45)
  - 9. 지금까지의 성취는 인생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으며,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든다.(44)
- 34. 내 자신 속에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44)
- 49. 내가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40)
- 33. 내 욕구와 흥미가 변하고 있다.(34)

**요인 6 : 정서적 위기감Ⅱ (권태와 자기혐오)-13문항**

- 85. 이유를 알수없이 막연히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다.(70)
- 75. 괜히 짜증이 난다.(68)
- 70. 기분이 울적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다.(67)
- 83. 조그만 일에도 걱정이 많아지고 마음이 혼란해 질 때가 많다.(65)

- 78. 사느게 지루하고 권태스러울 때가 많다.(.63)
- 61. 산다는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63)
- 89. 내 자신 또는 타인이 혐오스러워질 때가 많다.(.61)
- 74. 문득 고향이나 옛친지, 옛친구들을 찾아보고 싶다.(.49)
- 79. 과거를 돌이켜 볼때 억울하고 분한 느낌이 들때가 많다.(.48)
- 67. 그 동안 내자신의 욕구, 흥미등을 너무 억압하고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든다.(.48)
- 86. 과거를 되돌아 보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47)
- 55.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대한 열의가 예전만 못하며 할 수만 있으면 좀 쉬고 싶다.(.44)
- 8. 만사가 예전처럼 좋지 않다.(.43)

**요인 7 : 결혼 만족도-10문항**

- 76. 우리 부부는 많은 시간을 서로 싸우면서 보낸다.(.69)
- 84.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68)
- 63. 내 배우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없다.(.64)
- 88. 나의 배우자가 자기할 일을 소홀히 해 괴롭다.(.64)
- 26. 배우자가 귀찮은 생각이 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적이 많다.(.63)
- 68. 예전보다 자식 남편과의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다.(.59)
- 35. 우리 부부는 대화가 별로 없는 무미건조한 생활을 한다.(.55)
- 91. 내 배우자가 점점 더 비평적이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 괴롭다.(.55)
- 80. 결혼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안전감을 준다.(.47) (R)
- 95. 내 배우자가 가정밖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다.(.41)

**요인 8 : 자녀관계-6문항**

- 100. 내 아이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이 불안하고 속상한다.(.70)
- 97. 내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고 감사해 하지 않는다.(.68)
- 99. 나와 내 자녀들 사이에는 많은 틈이 있다.(.68)
- 103.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괴롭다.(.53)
- 90. 내 아이들이 내 생각처럼 행동하지 않는다.(.54)
- 93. 내 아이들은 나에게 만족의 큰 원천이다.(.35) (R)

**요인 9 : 성역할의 변화-5문항**

- 66. 예전보다 훨씬 가정적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한 다.(.60) (R) (남성 : R)
- 53. 예전보다 더욱 감정적이고 정서적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44) (R) (남성 : R)
- 60. 10년전보다 배우자에게 훨씬더 의존적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40) (R) (남성 : R)
- 59. 예전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 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한다.(-.35) (R) (남성 : R)
- 65. 예전보다 가정에서 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52) (R) (남성 : R)

\* (R)은 reverse된 문항임.

**분석II**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9를 제외한 8개의 요인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서 요인들간의 체계

적인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표3의 상관행렬표를 이용하여 분석I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단계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결과 축소된 상관행렬의 고유치와 누적변량이 표



표 3 9개의 요인간 상관행렬표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1.0000				
요인 2	0.3355	1.0000			
요인 3	0.5108	0.2610	1.0000		
요인 4	0.5064	0.3553	0.4776	1.0000	
요인 5	0.2662	0.5789	0.2317	0.2631	1.0000
요인 6	0.5981	0.5039	0.5399	0.6196	0.4556
요인 7	0.4703	0.2512	0.4323	0.3987	0.3099
요인 8	0.3777	0.1473	0.3633	0.3355	0.2098
요인 9	0.0774	0.0263	0.1531	0.0529	-0.0316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6	1.0000			
요인 7	0.5068	1.0000		
요인 8	0.3848	0.4889	1.0000	
요인 9	0.0938	0.1380	0.1212	1.0000

표 4 2단계 요인분석의 고유치와 변량

	1	2	3	4	5
고유치	3.3112	0.5962	0.1767	0.0298	-0.0610
차이	2.7149	0.4195	0.1468	0.0908	0.0393
변량	0.9605	0.1730	0.1513	0.0087	-0.017
누적변량	0.9605	1.1334	1.1847	1.1934	1.1757

  

	6	7	8	9
고유치	-0.1004	-0.1225	-0.1585	-0.2241
차이	0.0220	0.0360	0.0655	
변량	-0.0291	-0.0355	-0.1460	-0.0650
누적변량	1.1465	1.1110	1.0650	1.0000

4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고유치와 누적변량, 송사리검사, 평행선분석( $\lambda_3=0.153$ ,  $\lambda_4=0.104$ )의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고단계 요인 3개를 추출하여 사각돌리기를 한 결과 나타난 최종 요인구조가 표5에 제시되어 있다. 표5에 의하면, 고단계 요인 I에는 저단계의 요인4, 요인6, 요인1, 요인3이 .66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고단계 요인 II에는 저단계 요인2, 요인5가 .69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단계 요인 III에는 저단계의

요인7, 요인3, 요인8이 .6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저단계 요인3은 고단계 요인 III(.61)보다 고단계 요인 I(.66)에 약간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긴 하나 그 내용은 고단계 요인 III과 더 연관이 되어 있어 고단계 요인 III에 포함 시킨다. 따라서 9개의 요인은 3개의 잠재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2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각 요인이 의미하는 내용에 따라 고단계 요인 I은 “정서적 위기감” 고단계 요인 II는 “개별화과정” 고

단계 요인Ⅲ은 “생활사”(一常生活事)라고 명명한다. 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표6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 3개의 고단계 요인간에는 높은 상관관계

표 5 2단계 요인분석의 최종 요인구조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4	0.70358	0.44064	0.55637
요인 6	0.82201	0.64918	0.67262
요인 1	0.71342	0.42400	0.63137
요인 3	0.66140	0.34343	0.61348
요인 5	0.43731	0.69494	0.33998
요인 2	0.49618	0.71425	0.32098
요인 8	0.49.303	0.25272	0.60660
요인 7	0.60800	0.38344	0.69423
요인 9	0.12677	-0.00874	0.19985

표 6 2단계 요인간 상관 행렬표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	1.00000	0.64961	0.83806
요인 II	0.64961	1.00000	0.45612
요인 III	0.83806	0.45612	1.00000

### 분석 III

가장 좋은 문항을 선별해내서 자료를 축소시키고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구하기 위하여 ITEMAN(문항분석 computer program)을 이용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최종 통계치가 표7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요인1에서 요인9에 포함된 86개의 문항중 76개의 문항이 .50~.79의 양호한 변별도를 보이고 있으나 문항29, 문항58, 문항5, 문항14, 문항9, 문항22, 문항33, 문항53은 .41~.49의 약한 변별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요인9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59와 문항65는 .37이하의 낮은 변별도를 보이고 있다. 문항평균은 문항14(1.80), 문항84(1.89), 문항100(1.92)를 제외하고는 2.1~3.9의 범위에 있으며, 반응분포는 대부분의 문항

들이 비교적 정상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문항14, 문항100, 그리고 요인9에 포함된 문항들이 약간의 정적 편포를 보이고 있었다. 표7에 의하면, 요인별 편포도(skewness)와 용도(kurtosis)는 9개의 요인이 비교적 정상분포에 가까웠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 주는 Cronbach's Alpha를 살펴보면, 요인9 (Alpha=-0.059)를 제외하고는 요인1에서 요인8까지가 Alpha=.74~.89까지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요인9를 제외한 8개의 요인이 사용가능하며, 8개의 요인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중 7개의 문항이 변별도가 조금 약하나 변별도 지수가 양수일때는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별도, 반응분포, 문항평균이 모두 좋지않은 문항14만을 제외하고 총 80개의 문항이 사용 가능하다 (Allen & Yen, 1979, 이종성역, 1985).

표 7 하위척도에 대한 통계치들

요 인 :	1	2	3	4	5	6	7	8	9
N of Items	13	8	11	9	11	13	10	6	5
N of Examinees	299	299	299	299	299	299	295	299	299
Mean	2.706	3.353	2.910	2.790	3.335	2.829	2.281	2.301	3.060
Variance	0.572	0.411	0.519	0.338	0.350	0.475	0.523	0.489	0.232
Std. Dev.	0.757	0.641	0.721	0.581	0.591	0.689	0.723	0.699	0.482
Skew	0.398	-0.119	0.047	-0.194	-0.237	0.134	0.717	0.365	-0.163
Kurtosis	0.141	-0.233	-0.190	-0.160	0.208	-0.111	0.475	-0.204	0.038
Minimum	1.077	1.625	1.000	1.111	1.364	1.154	1.000	1.000	1.400
Maximum	5.000	5.000	4.909	4.556	4.818	5.000	5.000	4.667	4.400
Median	2.615	3.375	2.909	2.778	3.364	2.846	2.100	2.167	3.000
Alpha	0.891	0.747	0.838	0.745	0.766	0.866	0.859	0.780	-0.059
SEM	0.250	0.323	0.290	0.294	0.286	0.252	0.271	0.328	0.496
Mean Item-Tot	0.661	0.600	0.620	0.568	0.549	0.619	0.647	0.679	0.434

## 논 의

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분석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9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의 66.8%로 설명력이 약간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피험자에 비해 변인의 수효가 너무 많은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들 9개의 요인은 ① 정서적 위기감I, ② 과거의 재평가, ③ 직업만족도, ④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⑤ 자아의 이해, ⑥ 정서적 위기감II, ⑦ 결혼 만족도, ⑧ 자녀관계, ⑨ 성역할의 변화이었는데, ③④⑦⑧ 4개의 요인이 Costa와 McCrae의 MLC와 유사하게 나타난 점이 의미있는 발견이다. 또한 요인1은 요인6과  $r=0.59$ 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비슷하고 내용도 유사해서 재연구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져 G-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요인분석은 분석방법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자료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데, 사각돌리기(orthoblique rotation)를 할 경우 HKPOWER를 변화시키면 요인간 상관관계와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요인2와 요인5의 문항들 사이와 요인1과 요인6의 문항들 사이에서 유동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험자수를 대폭 증가시켜 재 연구를 수행 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요인구조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분석II에서는 “성역할의 변화 요인”을 제외한 8개의 요인이 정서적 위기감, 개별화 과정, 생활의 장의 3개의 고단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즉, 고단계 요인I(정서적 위기감)에는 정서적 위기감I,II와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등 정서적 위기감에 관한 요인들이, 고단계 요인II(개별화과정)에는 과거에 대한 재평가, 자아의 이해등 개별화 과정에 관한 요인들이, 그리고 고단계 요인III(생활의 장)에는 결혼, 직업, 자녀관계등 생활의 장면들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재분류 되었다. 그러나 이 3개의 고단계 요인들은 서로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서적 위기 부분과 생활의 장 부분의 상관이 높았으

며, 직업요인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생활의 장에 분류하긴 했지만 정서적 위기부분에서 오히려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중년의 위기가 결혼, 직업, 자녀관계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아니라, 중년의 전환기의 심리적 변화과정이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생활의 장의 3가지 차원으로 분리되어 측정되어, 이들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Costa와 McCrae의 MLC와 비교하면, MLC의 10개의 하위척도중 내향성, 시간조망의 변화, 억압된 자아의 출현등에 속했던 문항들이 요인2와 요인5에 묶여 개별화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삶의 지루함과 권태, 내적 혼란에 속했던 문항들이 요인1과 요인6에 묶여 Costa와 McCrae의 MLC와 유사하게 묶인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요인과 함께 정서적 위기감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직업 불만족, 결혼 불만족, 자녀관계에 소속되었던 문항들 역시 Costa와 McCrae의 MLC와 유사하게 묶여 생활의 장을 설명해주고 있으나 부모로부터의 분리감에 대한 문항들은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감에 대한 문항수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기에는 너무 적었거나, 또는 결혼하면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없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미국의 가족구조와 생활방식에 비해, 결혼 후에도 한집에 동거하거나 전화, 방문등을 통해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밀착되어있는 한국인의 가족구조와 생활방식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MLC의 “억압된 자아의 출현”에 포함되었던 성역할의 변화에 대한 문항을 보강해 개별화 과정의 하나로 추출되기를 기대 했었으나 성역할의 변화(요인9)은 신뢰도 지수가 -0.059로 너무 낮고 개별화 과정과도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아 제외 되었

다. 그 이유는 미국인에 비해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중년기에도 역할분담과 같은 성역할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 선택된 총 80개의 문항중 35개가 Costa와 McCrae의 MLC의 문항들이었는데, 정서적 위기영역과 개별화 과정에 대한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 더욱 풍부하게 보강된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Ⅲ에서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변별도가 양호하며 반응분포가 정상분포에 가까우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문항14, 문항100, 그리고 요인7(결혼만족도)의 문항들이 약간 정적편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항들이 동의하기 어려워 낮은 마루효과(floor effect)가 나타났거나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반응 경향성 때문이 아닌가 추론된다.

마지막으로 본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한계와 유용성,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할 변인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변인의 수효에 비해 피험자 수가 적어 보다 광범위한 표본에서는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연령층의 피험자를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의 인생주기(life cycle)나 가족주기(family cycle)상에서 볼때 여성과 남성은 역할이 변화해 가는 양상이 다를 뿐 아니라, 인습적인 성역할의 차이 때문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윤진,1985). 따라서 중년의 전환기에 경험하는 위기감의 내용과 정도 또는 시기가 다를 수 있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자들에 따라 “중년기”에 대한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가장 광범위하게는 35세-55세 또는 35세

-60세를 중년기로 구분하고 있다(김명자,1988). 그 중 중년기 위기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더욱 의견이 분분한데 이는 성인기의 발달이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가족주기, 직업주기등 사회적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인생행로에 따라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년기 위기감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인 연령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등 사회적 연령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더 심도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중년기 위기감은 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 결혼여부등 상태적인 변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직업, 결혼과 같은 인생의 발달과정에서 연속성을 가진 변인들과 더욱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Costa와 McCrae의 MLC에서 동일하게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자녀관계 요인이 추출된데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위기감과 이러한 변인들과의 역동적인 관계 파악은 아동, 청소년문제, 부모-자녀관계, 부부갈등등을 “가족 관계”라는 통합된 틀 속에서 해결해 보려는 최근의 가족치료적 접근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직업적 성취나 결혼관계, 자녀관계는 남성이나 여성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로서 청소년기의 정체감 발달 양상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와 중년기 위기감을 연결시켜 정체감 발달의 경로를 파악해 봄으로서 전 생애의 발달(life-span development)을 “과정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보편성과 유익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는데, 본 위기감 척도를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때, 그 중 정서적 위기 영역은 부정적인 정서적 측면을, 그리고 개별화 과정 영역은 자아의 이해와 같은 긍정적

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영역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만일 정서적 위기감이 개별화 과정에 수반되어 일어난다면, 그 이후의 발달에 유익한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두가지 영역과 중년후기의 생성감과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서도 심리적 적응기제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명자(1988).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논문**, 이화여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애순·윤진(1987). 성인기의 연령증가와 상황평가에 따른 대처행동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6(1), 1-9.
- 김애순(1990). 성인기 성격발달에 대한 이론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 74-88.
- 이순목(1991). **요인분석의 기초**(1991년도 출판예정).
-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Allen, M. J., Yen, W. M.(1979). 이종성 역(1991). **측정 이론의 기초**,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Cooper, M. W. (1977).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male midlife period: A descriptive, cohort study*. Unpublished undergraduate honors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Boston.
- Costa, P. T. Jr., & McCrae, R.R.(1978). Objective personality assesment. In M. Storandt, I. C. Siegler, & M. F. Elias (Eds.), *The clinical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Plenum.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0).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key to same issues in adult and old age. In P. B. Baltes (Ed),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pp. 65-102). New York: Academic Press.
- Gould, R. L. (1972). The phases of adult life: A study in development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ia-*

- try, 29, 521–531.
-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 Jaques, Elliott. (1965). Death and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502–514.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Kimmel, D. C. (1974).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Wiley.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L.,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men's life*. New York: Knopf.
- Livson, F. B. (1981). Paths to psychological health in the middle years: Sex differences. In D. H. Eichorn, J. A. Clausen, N. Haan, M. P. Honzik & P. H. Mussen (Eds.), *Present and past in middle life* (pp. 195–222). New York: Academic Press.
- Reinke, B. J., Holmes, D. S., & Harris, R. L. (1985). The timing of psychosocial changes in women's lives: The years 25 to 45.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176–186.
- Roberts, P., & Newton, P. M. (1987). Levinsonian studies of women's adult development. *Psychology and Aging*, 2,(2), 154–163.
- Sheehy, G. (1976). *Passages: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New York: Dutton.
- Vaillant, G.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Whitbourne, S. K. (1986). *Adult development (2nd e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Abstract**

**Factor Analyses of The Mid—Life Crisis Scale in  
The Korean Adults**

**Ae—Soon Kim & Gene Yoon**

Yonsei University

Recently, the theories of adult development by Levinson, Gould and other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ists have proposed the notion of mid—life crisis. However, the empirical measurement of this crisis scale has not been tried thoroughly. For the initial step to construct a mid—life crisis scale (5—point rating scale) in Korea, a questionnaire of 104 items was prepared. The respondents were 299 adults(108 males and 191 females)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ean age was 43 (SD=3.92; age range 35—51).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hypothetical construct of Mid—life Crisi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principal factor analysis, Scree Test and Pararell analysis, nine factors were derived and they explained 66.8% of the common variance. Through orthoblique rotation procedure, 86 items with factor loadings .34 and above were selected. These nine factors were grouped into three second—order factors( Emotional crisis, Individuation, and Life field) by higher—order factor analysis. Through the reliability measurement and item analysis procedure, the ninth factor — Change of sex—role — was eliminated and 80 items which consist of the first eight factors were finally selected.